

브레인헬스 함께2문화운동 취지문

세계최초 “브레인헬스 함께2문화운동”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KOREA)에서 시작합니다. 현 사회는 물질적, 경제적 풍요는 얻었지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려 정서적 안정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심한스트레스, 불면증, 집중력저하, 치매 등, 정신적장애로 인해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체장애는 보호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장애는 외면되는 이 사회는 제어하지 못할 사건에 봉착하면, 범죄 가중처벌에만 치중하는 듯 합니다.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범죄나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나 정신적장애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장애는 본인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회는 예방체계를 적극 도입해야 할 심각한 시기에 도달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몇몇사람, 단체, 종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민을 넘어 전세계가 함께 공동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행복한 자와 불우한 자” “종교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해 나가야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도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의 마음과 정신안에 있으며, 우리 몸은 선과 악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와 뇌기능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뇌의 기능은 자신의 삶 즉 자신의 생활습관에 따라 스스로가 뿌린대로 거두는 원리로서 정신의 지체인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작동 될 뿐입니다.

“브레인헬스 함께2문화운동”은 약물을 1%도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정신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는 뇌헬스운동 생활화를 적용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브레인헬스 함께2문화운동”에 참여하면, 본인의 뇌기능도 증진되고, 뇌병변(불면증, 우울증, 자살, 범죄 등)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 1명에게 (뇌기능분석3회 + 뇌헬스운동 10회)가 자동기부 됩니다.

“함께2문화운동에 참여한 자와 불우한 이웃이 함께 뇌헬스운동을 전개하여 이 사회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시작합니다.

